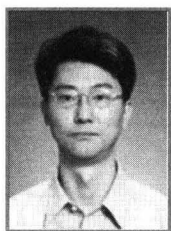


동아시아 담론의 쟁점과 전망

‘민족국가 뛰어넘는 지역 정체성·지역주의 형성 가능한가’ 시민적 권리공동체 ‘동아시아’, 담론의 핵심으로 부각

글_한승완(국제문제조사연구소)



1990년대 들어 다양한 시각에서 전개되기 시작한 동아시아 담론은 크게 세 흐름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선 한편으로 부국강병의 논리에서 세계화에 적응하는 동시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동아시아’ 혹은 ‘동북아시아’를 구상하는 입장과, 다른 한편으로 민족국가 단위를 넘어선 문명의 차원에서 세계화의 획일화 논리에 저항하는 거점으로서 ‘동아시아’를 논하는 입장이 서로 마주하고 있다. 전자의 입장이 주로 경제논리에 입각하여 부흥과 번영에 초점이 맞추어 있다면 후자는 전지구적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저항이나 변혁을 지향하는 점에서 다르다. 그러나 비록 지향하는 바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산업화를 주도했던 세력과 산업화 과정의 권위주의 체제에 저항했던 세력 모두가 최근 일국적 차원을 넘어서 동아시아에 주목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흥미로운 점이다. 이와 다른 시각에서 동아시아 지역의 공통된 문화적 특징으로 ‘유교’에 주목하고 서구의 근대성과 다른 동아시아의 ‘유교자본주의’를 주장하는 입장도 동아시아 담론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세계화와 탈냉전 속에서 세계경제는 급속히 국가간의 경계를 허물고 있는 동시에 지역통합도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동북아 지역은 지속적인 교역과 교류의 증대 및 상호의존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아직 본격적인 지역통합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근대 이후 민족국가 중심의 발전전략의 결과 강한 민족주의적 경향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진단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냉전으로부터 연원하는 안보질서가 존속하는 가운데 각국의 영향력 확대를 둘러싼 민족주의적 갈등의 소지는 동아시아 협력과 통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민족국가 단위를 뛰어넘는 지역 정체성과 지역주의의 형성 가능성이야말로 앞으로 동아시아 담론에서 주요한 논쟁 대상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한편 시장개방과 경쟁력 제고의 논리만으로 동아시아를 구상할 수 없다는 주장은 이미 경제적 논의 내부에서도 개진

되어 왔다. 가령 ‘시장논리를 넘어서는 상호부조의 논리와 경쟁논리와 구별되는 연대의 논리로 보완된 동북아 경제협력의 논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그것이다. 그리고 약육강식의 경쟁논리에 대안이 될 수 있는 ‘상호부조’와 ‘연대’의 논리를 동아시아에서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아시아 혹은 동북아라는 공간의 형성에서 정당성 문제의 제기를 통해 정치, 경제적 강제성과 효율성이라는 현실주의적 논의는 규범적 논의와 결합되고 있다.

규범적 논의는 주로 문화 혹은 문명적 시각의 접근에서 진행되고 있다. 우선 ‘유교자본주의’론에서 ‘유교문화’가 원자화된 개인주의가 만연한 서구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동아시아 유교문화’가 인류의 미래적 삶의 방식에 관해 말해주는 것은 물질적 번영과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한에서의 ‘문화적 코드’에 머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특히 ‘유교자본주의’에서 말하는 ‘가족주의’, ‘공동체주의’, ‘가부장적 관계’ 등은 이런 조건하에서 추천되는 가치, 즉 그 기저에 경제논리가 중심에 놓여있는 가치인 것처럼 보인다.

이에 반해 하나의 ‘지적 실험으로서의 동아시아’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동아시아의 새로운 문명’을 서구적 근대에 대한 하나의 건설적인 대안적 미래기획으로 이해한다. 그것은 민족중심주의적 시각을 극복하면서도 곧바로 전지구적 규모의 보편성에 빠지지 않는 ‘일정한 지역적 범위로서 동아시아에서 창출되는 새로운 문명’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 문명의 내용이 아직 채워지지 못하고 있지만, 적어도 기존의 ‘동아시아식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그 어떤 것도 아닌 대안의 대안’으로 대략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논의의 초보적 단계에서 선부른 평가는 금물이겠으나, 유럽의 경험은 이점에서 시사적이다. 그것은 유럽통합의 논의가 언제나 민주주의 심화와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즉 유럽통합의 과정이 단순히 과거 유럽의 역사, 문화, 영토의 동질성보다는 ‘민주주의’, ‘평등’, ‘인권’ 등 근대적 가치의 구현을 추구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시민적 권리공동체로서의 동아시아에 대한 기획은 앞으로 동아시아 담론에서 더욱 중요하게 부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승완**